

보도자료

정성윤 개인전
Super Segment
2024년 7월 19일 (금) — 8월 24일 (토)

*문의: press@whistlewhistle.kr 02-794-4775
서울시 용산구 호남로 13길 12 1층
<http://whistlewhistle.kr>
Instagram @whistle_seoul

작가 정성윤, 휘슬 갤러리에서 개인전 <Super Segment> 개최, 기계장치의 내외부적 움직임을 조형적으로 탐구.

휘슬은 7월 19일(금)부터 8월 24일(토)까지 정성윤 개인전 <Super Segment>를 전시한다. 기계로 수행이 가능한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뒤섞이는 현대 안에서 정성윤은 기계장치의 내외부적 움직임을 조형적으로 탐구한다. 작가의 입체적 설치물은 직접적인 움직임을 통해 순환의 경로와 체계를 가시화하거나 착시적 효과를 이용해 특정 움직임을 모방하기도 한다. 전시장에 놓여진 총 6점의 설치 작업은 각각 동력이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긴장과 질서, 압축과 팽창, 증식과 소멸을 구현한다.



정성윤, Modified Point, 2024, 모터, 스틸, PVC, 249.5x175.2x4cm

<Modified Point>는 공간에 맞춰서 스케일이 결정되었다. 전시장 전면 윈도우의 틀 한가운데에서 회전하는 판에는 출력된 이미지가 붙어있다. 중심을 기반으로 축이 돌아가며 그림자를 남기는 듯한 이미지. 3차원 입체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회전운동은 판의 얇은 단면을 드러낸다. 수직축이 내부와 외부에서 함께 회전하는 설계는 고정된 감상자의 시선을 계속해서 수정한다. 임계점과 경계가 설정됨과 동시에 희미해지는 순간을 드러낸다.

<러브레터>는 금속으로 만든 두 기둥이 회전하는 형태이다. 수직으로 연속되는 원형 탑의 일부를 포착한 것처럼 생겼다. 이들의 운동은 미세한 거리를 두고 맞닿아있다. 개성 없는 금속 곡면은 서로의 반쪽이 되며 텅 빈 원을 이룬다. 회전하는 기둥은 빈 돌레를 계속해서 생성한다. 초속 30km의 공전 속도와 같은 정속 운동은 우리의 감각적 인지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작가는 가장 정속한 움직임을 선택한다. 긴 시간 들여다볼 만한 것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달성해 낸다.



정성윤 개인전 <Super Segment> 전시전경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천체와 같은 무의미한 공간이 확인시켜주는 절대적인 고립에 대한 작가의 흥미와 두려움을 두 점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거운 점들>과 <은하수>는 점이 되어, 연속하는 선이 되어, 겹쳐진 면이 되어, 아득한 반복이 되어 놓여있다. 연속되는 층위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다. 그득한 덩어리들은 서로를 짓누르며 팽창해 있다. 사건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은하의 모티브에서 출발한 이 두 고립계는, 교란과 붕괴라는 시각적 사건을 관람자 앞에 발생시킨다.



정성윤, 은하수, 2024, 알루미늄, PVC, 120×96×30cm

<자기 수양>은 동형의 원이 똑같이 조율된 간격의 행렬을 이루는 형태. 나열된 횡들은 앞뒤 코스만을 가로지르고, 그 예리함 때문에 소리 없이 조용하다. 최소한의 마찰에 대한 최대한의 통제. 이는 전후 없는 운동을, 도열 된 침묵 속에서 가능케 한다.

자전적 또는 단일적으로 읽힐 여지가 제거된, 시릴 정도로 단순화된 결과물은 작가의 경험이 온통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풍성한 정보를 우리에게 던진다. 기계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소와 설계의 역추적. 스스로를 향한 차가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그 추적의 보고를 더더욱 단순하게 강화한다. 힘을 품은 이 대상들에게는 허구가 틈입할 수 없는 사실만이 서려 있다. 동력을 다루어 움직임을 시도하던 시기를 넘어, 해체를 통한 힘의 이해를, 작가는 물질로 열려 놓았다.

(전시 서문 『Strength Beyond Strength』 중 발췌, 박성민)



정성윤 개인전 <Super Segment> 전시전경

사진: 양이언. © 정성윤, 휘슬. 2024

작가 약력

정성윤은 기계장치와 그에 따르는 조형을 통해 욕망과 믿음이 확장되어 종말하는 순환의 경로를 그려낸다. 작가는 힘이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임계점의 사선에서 배회하는 순간의 긴장과 질서를 (비)기능적 기계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순환 체계가 표상되는 조건들을 탐구하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포도의 맛》(2021) 페리지갤러리, 서울시립미술관의 SeMa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으로 《이클립스》(2014)를 비롯하여 김종영미술관의 《사소한 위협》(2016) 등이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는 2017년 고양스튜디오(국립현대미술관), 2012-13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서울시립미술관) 입주작가로 참여했다.